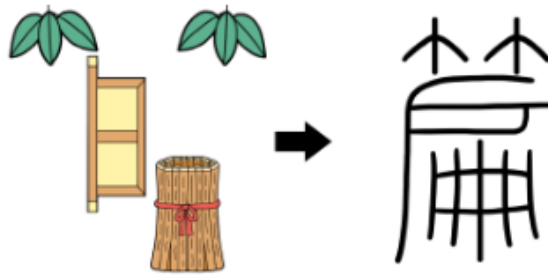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篇

책 편

篇자는 '책'이나 '서책', '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篇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扁(넓적할 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扁자는 널빤지에 글이나 그림을 그려 문 위에 걸어 놓던 편액(扁額)을 그린 것으로 '넓적하다'나 '두루'라는 뜻이 있다. 篇자는 이렇게 '넓적하다'라는 뜻을 가진 扁자에 竹자를 결합한 것으로 죽간을 엮어 넓게 만들었음을 표현했다. 고대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죽간을 길게 엮어 놓은 것을 '책'이나 '편'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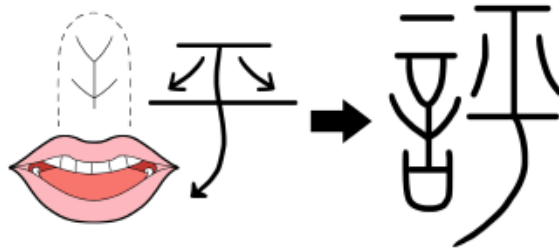
篇

소전

篇

해서

회의문자①



評

평할 평:

評자는 '평하다'나 '평론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評자는 言(말씀 언)자와 平(평평할 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平자는 干(방패 간)자 사이로 八(여덟 팔)자를 그린 것으로 '고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評자는 '말(言)을 고르게(平)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져 '평하다'나 '평론하다'를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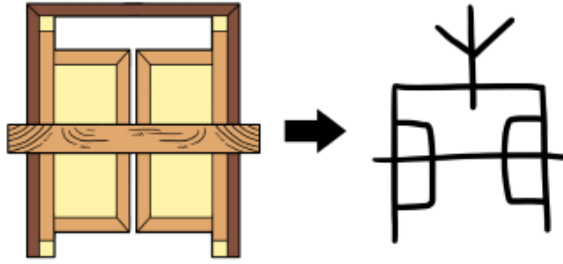
評

소전

評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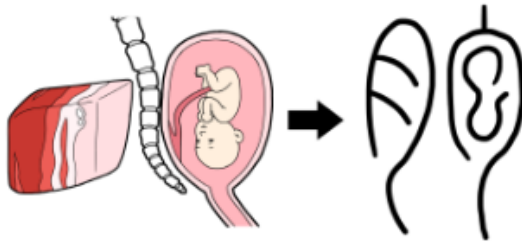
閉

닫을 때:

閉자는 '닫다'나 '막다', '가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閉자는 門(문 문)자와 才(재주 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才자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새싹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갑골문에 나온 閉자를 보면 대문에 빗장이 걸려있는 𠔁 모습이었다. 금문에서는 門자에 十(열 십)자가 그려진 𠔁 형태로 바뀌게 되었지만 모두 문을 걸어 잠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閉자는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가리다'나 '감추다'와 같이 문을 닫는 행위에서 연상되는 의미도 파생되어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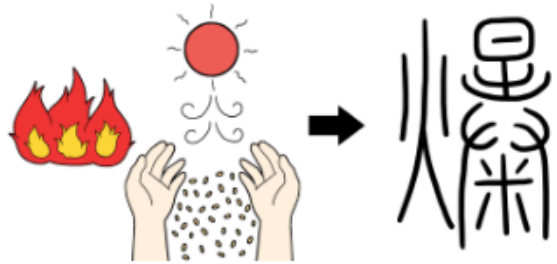
胞

세포  
포(:)

胞자는 '포자'나 '태보', '친형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태보'란 아이를 감싸고 있는 자궁의 막을 뜻한다. 胞자는 月(육달 월)자와 包(쌀 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包자는 자궁에 들어가 있는 태아를 그린 것으로 '(둘러)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진 包자에 月자가 결합한 胞자는 둥글게 둘러싸인 신체기관을 뜻한다. 胞자에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한 뱃속에서 태어난 '친형제'를 뜻하기도 한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爆

불터질  
폭

爆자는 '폭발하다'나 '터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爆자는 火(불 화)자와 暴(사나울 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暴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에 쌀알을 펼쳐 말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납다'나 '난폭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사납다'라는 뜻을 가진 暴자에 火자를 더한 爆자는 "불(火)의 기세가 사납다(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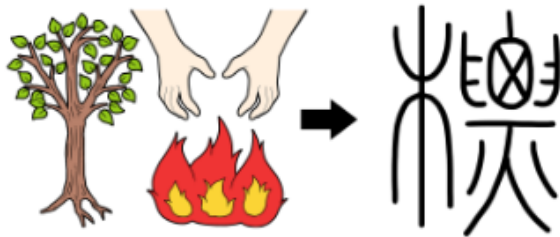
爆

소전

爆

해서

회의문자①



標

표할 표

標자는 '표하다'나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標자는 木(나무 목)자와 票(불뚱 툼 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票자는 튀어 오르는 불뚱을 손으로 잡으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나무가 타면 그 열기로 인해 불뚱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標자는 불뚱을 뜻하는 票자에 木자를 더해 불뚱이 나무 끝까지 다다른다는 의미에서 '나무의 끝'을 뜻하게 되었다. 標자는 이외에도 어느 목표의 정점을 뜻하기도 하는데, '나무의 끝'을 목표지점에 다다른 것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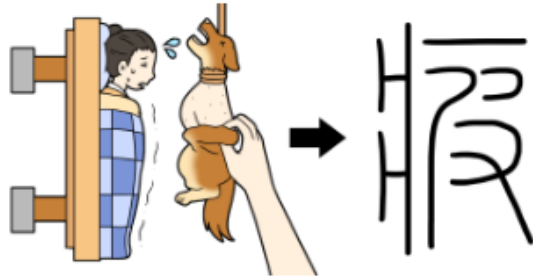
標

소전

標

해서

회의문자①



疲

피곤할  
피

疲자는 '지치다'나 '피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疲자는 疒(병들 녀)자와 皮(가죽 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皮(가죽 피)자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죽'이나 '껍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사람이 지치거나 피곤해지면 피부가 먼저 거칠어진다. 그래서 皮자는 발음과 함께 '피부'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고 있다. 疲자는 이렇게 피곤함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다는 의미에서 '지치다'나 '피곤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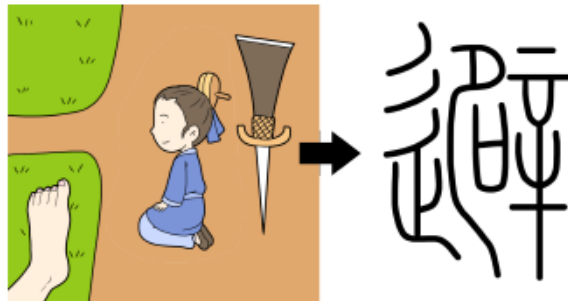
疲

소전

疲

해서

회의문자①



避

피할 피:

避자는 '피하다'나 '벗어나다', '회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避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辟(피할 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辟자는 사람과 辛(매울 신)자를 함께 그린 것으로 '피하다'라는 뜻이 있다. 한자에서 幸자는 주로 노예와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그래서 避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죄수가 잡힐까 두려워 길을 피해 다닌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천민들이 상전들을 피해 골목으로 다닌다는 해석이다. 조선 시대 때 말을 타고 종로를 행차하던 양반들을 피하고자 서민들이 다니던 길을 '피마골(避馬골)'이라 했으니 避자의 대략적인 의미가 이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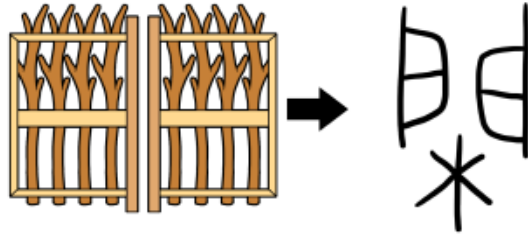
避

소전

避

해서

회의문자 ①



閑

한가할  
한

閑자는 '막다'나 '한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閑자는 門(문 문)자와 木(나무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閑자는 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뜻하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막다'였다. 울타리는 산짐승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가축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든 나무 우리를 말한다. 閑자에 木자가 쓰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閑자는 '마구간'이나 '목책'이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집 주위로 울타리를 친 모습은 외부와의 단절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閑자는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는 의미에서 '등한시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외부와의 단절로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한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참 많은 것을 연상케 하는 글자이다.

閑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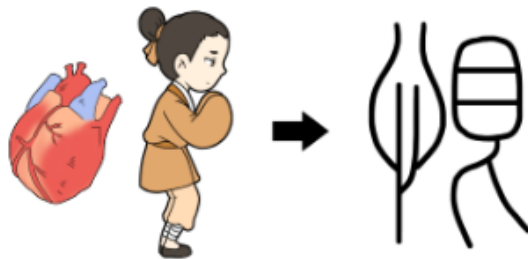
閑

소전

閑

해서

회의문자 ①



恨

한[怨]  
한:

恨자는 '유감이다'나 '원망스럽다', '억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恨자는 心(마음 심)자와 艮(그칠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艮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허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엄격한 신분제도가 유지되었던 고대사회에서 천민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고달픈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艮자에 心자가 결합한 恨자는 이들이 가진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恨

소전

恨

해서